

# 물류업계 특명 “개인 정보를 보호하라”

## 가상전화번호 발급, 운송장 변화 등 구체화된 정보 보안책 나와

지난해 9월 GS칼텍스는 고객 정보 관리 소홀로 큰 곤욕을 치렀다. 내부 직원이 악의적인 의도로 1,100만 건의 고객 정보를 CD로 담아 유출했던 것.

이 사건으로 자회사 5명이 기소됐으며 GS그룹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4만 여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해 청구금액만 총 408억8000여만 원에 달했다.

이 외에도 2008년 한 해 동안 옥션, 하나로텔레콤 등 다수의 고객 정보에 구멍이 뚫리면서 지난해는 개인 정보 보호 중요성 증대의 분수령이 됐던 한해였다.

2008년 12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발표한 ‘국내 SW 시장 2008년 회고와 2009년 전망’에 따르면 2009년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시장수요가 증대할 IT 기술 이슈는 IT와 비IT 산업간 융합, 그린 IT에 이어 보안이 3위에 올랐다.

그러나 물류기업의 보안의식은 미비했던 게 사실. 물류기업을 영업 대상으로 눈여겨보지 않는 대다수의 정보보안업체들의 모습은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도 물류기업의 개인정보 보안 소홀이 지적됐다. 김기현 의원(한나라당, 울산 남구 을)은 우체국 택배표지에 택배 발송자와 수령자의 개인정보가 휴대전화번호까지 상세히 기재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

### 운송장에 암호화된 가상전화번호 전환 방법 나와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던 물류기업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이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는 분위기다. 특히 택배와 같이 생활 물류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하물며 택배 내용물에 대한 정보까지 운송장에 적혀져 있어 정보보안에 더욱 더 적극적인 모습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지적을 받은 후 개인정보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비접착 기표지’를 작년 12월부터 보급,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기존에 보급된 물량과 함께 병행, 이용하고 있다.

현대택배도 온세텔레콤과 고객정보 보호 서비스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정보 보안에 나섰다.

온세텔레콤이 제공하는 정보보안 시스템은 DB 암호화 솔루션으로 택배운송장에 실제 고객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암호화 프로그램에 의해 변환된 가상전화번호가 운송장에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고객 휴대폰, 일반전화번호 모두 가상의 임시번호로 전환되며 운송장에 사용되는 가상의 전화번호는 택배 배송 완료와 함께 전산프로그램에서 자동 삭제된다. 이 시스템은 현대택배 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 대한통운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운송장 변화로 정보 유출 원천봉쇄

한편 한진택배는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운송장에 변화를 줬다.

상자에 부착되는 운송장의 전화 번호 기재란을 코팅 처리해 버려진 운송장을 통한 정보 유출을 사전

도록 절취선을 보완했다.

### 정보보호 관련 인증 획득으로 화주 신뢰성 높여

글로벌비스는 지난 2일 국내 물류업계 최초로 ISO 27001(국제 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신뢰성을 높였다.

ISO27001(국제정보보호경영시스템)인증은 정보 보호관리체계 국제 표준 인증으로 기존 영국표준인 (BS:British Standard) BS7799에서 승격된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정보보호 인증 제도다.

또한 글로벌비스는 매주 내부 보안정책 재정비 및 보안 위험 평가 등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항시적인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보안의식과 실천을 통해 정보 보안 수준을 향상 시키고 있다.

### 물류 IT 기업, 보안 분야에도 진출

물류기업들이 개인정보 보안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와 비슷하게 물류 IT 기업도 개인 정보 보안 시장에 진출했다. 물류IT 전문기업 케이엘넷은 ‘유비쿼터스 보안 서비스(Ubiquitous Security Service) 사업’ 발표와 함께 ‘IT와 정보보호융합’ 사업 추진을 본격화 했다.

(주)더존정보보호서비스, (주)시큐브, (주)유스마트테크, 케이티비솔루션, (주)에이쓰리시큐리티, (주)퓨전아이텍, e-Smart Korea 등 정보 보안업체들과 컨소시엄도 구성했다.

유비쿼터스 보안 서비스는 △지문스마트카드를 통한 접근통제 △가상사설망을 통한 암호화 △지문 및 공인인증서 인증 모듈을 통한 로그인 △개인정보 유출자 색출을 위한 포렌직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정 제출 증거 확보 △개인 PC 보안 및 하드디스크 암호화 백업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지난해 수출입 물류 분야에서 물류보안 경영시스템(ISO 28000) 인증제도가 마련됐으며 범한판토스 등 4개 회사가 시범 사업자로 선정됐다.

화주와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한 물류기업의 고객 정보 보안 강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배수진 기자, sjbae@klnews.co.kr〉



에 원천 방지했다. 일반 택배운송장은 보통 3~4장으로 이루어져 고객이 송수하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면 먹종이를 통해 중첩된 여러 장의 모든 정보가 함께 인쇄돼 택배상자 폐기 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한진이 개발한 택배운송장은 택배상자에 붙이는 마지막 장의 전화번호 기재란을 코팅 처리해 정보를 제한적으로 인쇄시켜 정보 노출을 방지했다. 코팅 처리된 운송장은 고객이 작성한 택배운송장에서 고객 영수증용과 택배기사 배달표를 제거한 이후 그 밑에 남아 버려진 운송장에는 고객 전화번호가 없다. 이와 함께 한진은 고객이 택배 상자를 버릴 때, 운송장을 쉽게 제거할 수 있